논어 10편 향당 4장 · 원문·풀이

入公門，鞠躬如也，如不容。立不中門，行不履閾。過位，色勃如也，足躩如也，其言似不足者。攝齊升堂，鞠躬如也，屛氣似不息者。出，降一等，逞顔色，怡怡如也。沒階趨進，翼如也。復其位，踧踖如也。

독음 · 입공문 국궁여야 여불용 립부중문 행불리역 과위 색발여야 족곽여야 기언사부족자 섭자승당 국궁여야 병기사불식자 출 강일등 령안색 이이여야 몰계추진 익여야 복기위 축적여야

쉬운 풀이(요약) · 궁문과 임금의 자리,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자세와 숨과 걸음을 삼갔다. 자리와 절차에 맞게 공경을 나타낸 모습이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入 들 입 입 / 公 공변될 공 공 / 門 문 문 문 / 鞠 기를 국 국

躬 몸 궁 궁 / 如 같을 여 여 / 也 어조사 야 / 不 아닐 불

容 얼굴 용 용 / 立 설 립 립 / 中 가운데 중 중 / 行 다닐 행 행

履 신 리 리 / 閾 문지방 역 역 / 過 지날 과 과 / 位 벼슬 위 위

色 빛 색 색 / 勃 갑작스러울 발 발 / 足 발 족 족 / 躩 공경할 곽

其 그 기 / 言 말씀 언 언 / 似 같을 사 사 / 者 놈 자

攝 몰아 잡을 섭 섭 / 齊 가지런할 제 제 / 升 되 승 승 / 堂 집 당 당

屛 병풍 병 병 / 氣 기운 기 기 / 息 숨쉴 식 식 / 出 날 출 출

降 내릴 강 강 / 一 한 일 일 / 等 가지런할 등 등 / 逞 굳셀 령 령

顔 얼굴 안 / 怡 기쁠 이 이 / 沒 가라 앉을 몰 몰 / 階 섬돌 계 계

趨 달아날 추 추 / 進 나아갈 진 진 / 翼 날개 익 익 / 復 돌아올 복 복

踧 조심할 축 / 踖 조심할 적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